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합창의 귀적> 전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5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은, 5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입니다. 5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은, 5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입니다. 8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은, 8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입니다. 8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은, 8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입니다.



<인간합창의 귀적> 전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1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은, 1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입니다. 1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은, 1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입니다. 1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은, 1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합창'입니다. (Epworth) 찬송가 100년 기념 특별 전시, 100년, 100년 전부터.



김영의, 엡윗 청년회.

김 '엡윗 청년회' 창립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1908년 11월 15일 엡윗 청년회를 창립하였다. 이 청년회는 1911년 11월 15일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으며, 1963년 11월 15일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최영섭 작곡가겸 지휘자

최영섭 작곡가 겸 지휘자 '최영섭'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인천에서 활동했다. 1958년 인천정문관악단 지휘자로 '친사랑장의 밤'을 연주회를 인천영해극장에서 개최했다. 이후 내리교회 성가대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오케스트라 반주의 예시아 전국 지휘를 한다.



윤학원 예술감독

그는 '대한민국 음악'을 위한 헌신과 열정을 보여준 인물로, 국내외에서 수많은 음악회를 지휘하고 작곡가로도 활동했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음악사적 흐름을 주도한 그는, 한국 음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음악은 한국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고,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다.



<인천합창의 궤적> 전시 전경

□/ □□□

□□□□□□ □□□□ □□, □□□□ □□□□ □□
 □□ □□□□□□ □□□□ □□□ □□ (D.M.A.)
 YTN “□□□□ □□□□” □□
 □□□□, □□□□. □□□□ □□
 (□)□□□□ □□□□□□ □□

[□□□□ □□□□ ▶](#)
[□□□□ □□□□ ▶](#)

□□
 □□□